

오전9시,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43장(즐겁게 안식할 날)..... 다 같이
※ 교독문 10(시편 16편).....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94장(주 예수 보다더 귀한 것은 없네).....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김선주집사 2부 김성희집사
응답송 찬양대
이달의찬양 “살아계신 주”.....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이
*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 마르다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 장애우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빌립보서1:12-21 노순영집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 최세열목사
기도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 342장(너 시험을 당해) 다 같이
봉헌 (마르다회).....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금)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도 / 말은이	본문 / 베드로전서1:20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요한복음15:1-10	읍기서강해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금요기도회	
교회를 경험하는 삶	31과 “복음의 발견”	축도 / 최세열목사	주기도문 / 다같이	금요일 오후8시	합심기도, 중보기도, 개인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다음주 기도	1부	안복선집사
	헌금위원	4월 심문자 김중천 홍강의 인민숙	다음주 성경봉독	2부	강항구장로
	식당봉사	금주 남신도회 다음주 마르다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1부	말은이
	헌신찬양	금주 마르다회	다음주 9 구역	2부	박상권권사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 빌립보서 1:12-21

2017년 지구 종말시계는 밤11시57분30초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가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다가오는 다양한 위기들로 인하여 힘겨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혹은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환경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1. 바울은 환경의 위기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는 환경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위기의 상황을 복음진보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체포되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요 기도의 응답으로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에 가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했는데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위기는 복음진보의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롬8:28)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을 때 환경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2. 인간관계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투기하던 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중상모략하며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비난이 바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냐 겠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18)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풀어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를 다른 이에게 자랑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존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될 때 인간관계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3.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귀기가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합니다(갈2:20).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하여 그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거하며 동락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느냐가 관심이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언제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입니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신앙주제4:고난과 부활)
4/15 제3과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고!(갈라디아2장 20절)

말씀 살피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믿으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욕망 덩어리인 나를 비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묵상

부활이란 무엇인가? 절대 쉽지 않은 질문 앞에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물으며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이과의 성경본문(갈2:20)을 통해서 찾았으면 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까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안에 더는 내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부활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가능합니다.

둘째,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합니다

바울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부활절을 수십 번 맞이했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삶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때부터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그 대신 예수님의 생각이 살고, 예수님의 방법이 살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고!” 부활을 사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셋째,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 ◎◎◎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 ◎◎◎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 ◎◎◎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외칩시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그때 나는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고!”

1. 신앙생활 하는 나는 지금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라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해봅시다.
2.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더 많이 깨지고 죽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평신도 참여예배로서 마르다회가 함께 합니다. 마르다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주일은 평신도 참여예배로 드립니다. 마르다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든솔 선교활동을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창립50주년(2021년)을 준비하는 모임을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갖습니다. 모든 교우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교인 봄수련회가 이번 주토요일(21일)에 천리포수목원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6. 경기장로회의 봄 수련회가 4월17일(화)에 있습니다.

4월의 교회행사	
1. 평신도참여예배	: 4월 15일 / 마르다회
2. 전교인봄수련회	: 4월 21일(토) 오전9시 / 천리포수목원
3. 해든솔선교활동	: 4월 14일(토) 오전8시30분
4. 경기노회 제181회 정기노회	: 4.22-23 / 둔전교회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이용훈 김영숙 이석영 나금옥 조종순 김선주 원혜경 강승례
- 감사헌금 : 김예은 김홍영 황은상 김양순 양석임 박홍만 정정희 심문자 양희임 김동현 최현진 박지혜 김지환 이용훈 김영숙 김혜경 무명2 (부활) 노순영 최광희 (생일) 배경민 정숙자 (일천번제) 이병각 인민숙 김동현 김지환 한진현 한재현
- 건축헌금 : 이석영 바울회
- 비전씨앗 : 배영인 김하윤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1:00	도 서 실

지혜로운 배려

예술계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는 키가 작아서 4m가 넘는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3단 가설물을 오르내리며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엄청난 양의 대리석가루를 들이마시며 고군분투한 결과 세기의 걸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피렌체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소델리니가 다비드상을 조각 중인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코가 지나치게 높고 커서 전체 조각상과 조화가 안 되는 게 흠이네요."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날카로운 정을 다비드의 코에 대고 망치질을 했습니다. 정을 때리는 망치 소리와 함께 대리석 가루들이 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사실 다비드의 코에는 손도 대지 않고, 손안에 미리 쥐고 있던 대리석 가루를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내려놓은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소델리니는 크게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작품에 생명력이 감도는 것 같아 좋네요. 내 말 대로 하니까 작품이 훨씬 훌륭해졌습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기보다, 비록 비예술가의 안목이지만 소델리니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지혜롭게 배려해 준 것입니다.

막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스펠전(Charles H. Spurgeon) 목사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힘드는 일을 당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교인의 집을 심방하게 됩니다. 담이 있는 마당에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에 갇힌 소는 고개를 쳐들고 멀리 초원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스펠전 목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소는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초원의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 주인이 문을 열어 주기만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그 때에 깨닫습니다.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혀있는 시간들이야말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시간이로구나!"

모든 것이 막혔다 싶을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한다”

2018-15호 2018.4.15.

부활절 셋째 주일/ 장애인 주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이지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장애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주님 곁에는 많은 장애우 들이 있었으나 지금 우리들 곁에는 우리의 편견과 무지로 인해 그들이 점점 우리를 떠나 외로움과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만으로 그들을 판단했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이나 그들을 무시하는 모든 악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애우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치료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눈물을 나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애우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땀과 정성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은 건강하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왜곡된 관점을 지닌 채 살아가는 정신적 장애인들이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판단과 선택 그리고 진실된 행동으로 어그러지고 왜곡된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답임특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정언태특사 지휘:손효모 반주:김은영 최지현